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MARCH / APRIL 2024
통합의료원보 VOL. 82 03/04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의료원보 2024. 03/04

SCH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SOON CHUN 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순천향
'인간사랑' 50년,
글로벌 병원으로
비상하다



SCH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SOON CHUN 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EMPTY

고정관념은 비움, 미래가치는 채움

FILL

비움과 채움으로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순천향 사람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집니다.

'순천향 사'은 각자의 위치에서 순천향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설립 이념인 '하늘 뜻 받들어 인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넓은 사고는 비워내고, 많은 가치는 채우며 더 나은 순천향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50년간을 그렇게 채우고 또 비우며 글로벌 병원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100년을 향해 '인간사랑'을 위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찾아갑니다!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2024. 03+ 04 VOL. 82

발행일 2024년 3월 15일

통권 82호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배지연, 이상원, 유채민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연락처 02-710-3166 www.schmc.ac.kr

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04

SPECIAL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환자와 함께한 인간사랑 50년

12

LOVE

“코골이가 없어서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 구강악안면외과 강나라 교수
VS 김건우 환자



14

HISTORY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 『서석조 평전』 연재
- 유년 시절



16

DOCTER

부천병원이 자랑하는
국내 최고 로봇수술 전문가
- 정수호 부천병원 산부인과 교수



20

VISIT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충남지역 최초 로봇수술센터
- 천안병원 로봇수술센터



24

WITH

지역사회 구축구석
어둠을 밝혀주는 선한 영향력
- 곽현근 (주)대경테크노 대표



26

ISSUE

항생제 내성도 주의, 세균성장염
일으키는 '캠필로박터감염' 증가

28

ISSUE

- 부천병원, '처음 오신 분 전용 창구'
신설로 환자 편의 높인다
- 부천병원, '여성암 맞춤 치료' 앞장선다

30

ISSUE

- 천안병원 전문성 높이는
3인의 '초빙 名醫 트로이카'
“인생 2막을 충청에서, 환자위해
역량 열정 쏟아 부는다”
-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32

ISSUE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지역 유일 5회 연속 최우수 S등급' 획득

34

KNOWLEDGE

SGLT2억제제,
만성콩팥병 환자의 콩팥 손상 줄인다

36

KNOWLEDGE

위 선종 환자, 내시경 절제 후 '헬리코
박터균' 없애면 위암 발생 위험 감소

38

KNOWLEDGE

손발 절단 부르는 '폐색혈전혈관염'
금연으로 예방해야

40

KNOWLEDGE

방치하면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45

EQUIPMENT

3세대 듀얼 소스 CT '소마툼 포스 CT'

44

NEWS



표지설명

순천향 설립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장을 거듭하여
지역 병원에서 글로벌 병원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를 중이학으로 형상화하여 더 큰 미래를 향하는
순천향의 발전을 바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의료법인 1호에서, 글로벌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환자와 함께한 인간사랑 50년

순천향(서울병원)이 올해 탄생 50주년을 맞았다.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의료계에 큰 업적을 남기고, 세계의 병원으로 도약하는 순천향의 발자취와 비전을 소개한다.

글_ 이미중 순천향대 서울병원 홍보팀장 사진_ 홍보팀 제공



첨단 장비, 최신 시설, 최고 의료진의 종합병원 탄생

순천향은 항설 서석조 박사가 1972년 12월 12일, 현재 서울병원 위치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번지에 총무처로부터 1,004평의 부지를 확보하면서 태동했다. 1973년 4월 3일 서울병원 본관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8월 5일 의료법인 순천향병원 설립총회를 12월 27일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가 탄생했다.

순천향(順天鄉)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술을 펼쳐가는 고향’이라는 병원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서석조 이사장님의 인간사랑의 정신을 환자 진료 및 병원경영에 반영했다.

순천향병원을 모태로 1978년에는 문교부로부터 학교법인 동은학원과 순천향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초대 이사장에 김정옥 이사가 취임했다. 순천향은 초기부터 영리를 쫓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한국 사회 전체의 의료수급에 기여하면서 성장했다. 1979년 개원한 순천향 구미병원 역시 공단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종합병원으로 근로자

의 의료문제 해결 뿐 아니라 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 대학교를 설립한 이후에도 천안병원과 음성병원, 부천병원 등 전국적으로 의료공백이 생기는 지역에 병원을 건설했다. 인구가 크게 늘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세워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에 세워 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무의촌 해소에 기여하는 데 앞장섰다.

선도적인 진료시스템 도입과 연구 기반 확대

순천향은 개원 초기인 1976년에 산업의학연구실을 개설했고, 1977년에는 암연구소를 설치했다. 특히, 개원 당시부터 나라의 토대는 2세가 굳건해야 세울 수 있다는 정신으로 모자보건에 관심을 쏟았다. 1978년 모자보건연구소를 설치한 이후,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1985년 7월 12일 국내 최초의 한국모자보건센터가 세상에 태어났다.

1985년 5월에는 치료방사선과(현 방사선종양학과)가 설치되



어 말기 암환자에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성인병 연구소 및 종합건강검진센터를 발족했다.

1995년에는 소화기연구소를 개소하여 1996년부터는 매년 2회의 복부초음파 진단 및 내시경 초음파 단층촬영술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1998년 3월에는 소화기병센터를 국내 최초 전문센터로 개설했다. 병원 주위 한남동, 이태원에 외국인 많이 거주하고, 각국 대사관과 외국 공관이 많은 관계로 1999년 2월 외국인 진료소(현 국제진료센터)를 개소하였고, 1999년 10월에는 늘어나는 심장병 환자 진료를 위해 별관 3층에 새 장비를 도입하여 심장병센터(현 심혈관센터)를 개소했다. 2000년 3월에는 수혈을 거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위해 무수혈센터를 개설해, 20년 이상 무수혈 및 최소수혈 등 환자혈액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병원에서 개발한 혈액관리프로그램(PBM, Patient Blood Management)를 도입해 의료진이 혈액을 처방할 때 정말 필요한 수혈인지 사유를 적도록 하고,

적절 수혈 처방 체크리스트와 환자 혈액 검사 결과가 함께 보이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2004년 4월 개원 30주년을 맞아 척추센터(초대센터장 신병준)와 관절경센터(초대센터장 이병일)를 개소하고 5월에는 '통증 없는 병원'을 선포했다. 또한, 11월에는 줄기세포치료센터를 개소했다.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를 마쳤고, 6월에는 배아 연구기관 등록, 10월에는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아 연구기반을 확대했다.

2006년에는 국내 최초로 '소아알레르기호흡기센터'를 개소해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 2008년에는 사이버나이프센터를 개소해 암 환자의 치료와 연구에 체계를 더 했다. 2016년에는 최신형PET-CT, SPECT-CT, 감마카메라를 갖춘 핵의학검사실 오픈하였고, 2017년에는 첨단로봇수술기 다빈치Xi 및 테이블모션테크놀로지를 가동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2023년부터는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서비스와 환자용 앱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 수납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부터 AI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예약확인 기능을 담당하는 콜센터 서비스와 퇴원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AI기반 돌봄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에 앞장

코로나19 시기에는 생활 치료시설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였고, 격리치료시설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위해 용산구, 동작구를 비롯해 관할 구역을 벗어난 지역까지도 협업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왔다. 2022년 10월 말에는 유례없는 이태원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 가용할 수 있는 의료진과 행정직원 등이 밤을 새워 재난 상황에 대응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2004년부터 진료협력센터를 개설하여 1천여 개 협력 병·의원을 포함한 1, 2차 의료 기관과 진료 의뢰 및 회신, 회송(전



2020. 5. 18. 코로나 의료진 덕분에 챌린지

원)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용산구로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 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사회적인 ESG 경영에도 전력하고 있다.

인간 사랑을 세계로 펼친다

순천향병원은 개원초부터 무의촌 지역을 비롯해 의료사각지



대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977년 서산보건의료사업소를 개소하기 전인 1976년부터 서산 삼화목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무의촌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개교 후에는 학교 주변 지역과 수해 지역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회복지시설, 무의촌, 지역 주민센터/복지관 등에서 연 3~7회 의료봉사를 실시하여 2001년부터 2022년까지 145회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정부와 민간단체 지원, 원내 후원금 등을 연계하여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총 8,015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166억 5,694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2013년에는 베트남 퀴논 시에 백내장 수술센터를 개소하고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기술진을 파견하여 일회성, 소모성 해외 봉사의 단점을 극복한 장기 의료봉사 모델을 구축했다. 베트남뿐 아니라 2015년 지진 피해를 겪은 네팔 카트만두 외곽의 빈민촌의 고아원, 필리핀 고아원을 돕기 위해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고,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태국

등을 방문하여 무료검진, '밥퍼' 급식봉사, 물품후원, 초청수술(심장질환, 구순구개열, 인공와우) 등 폭넓은 봉사를 실시해 왔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을 비전으로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여 2011년부터 지역사회복지시설인 아동 양육시설과 노인종합복지관, 요양원, 중증장애인시설 등에서 761명의 직원이 6,198시간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인간사랑 순천향 정신을 몸소 실천하였다. 2004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순천향나눔회'는 원내 동아리 형식으로 시작되어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을 위한 노력은 계속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희귀, 난치 질환 연구 활성화와 치료기회를 확대한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연구부의 비전이다.

2022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연구부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3월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았고, 10월에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받았다. 또한, 외부에 위탁하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원내에 설치해, 병원 특성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설한 임상시험지원팀(ARO)에서는 연구비가 적은 연구자들의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등 연구자 맞춤형 임상시험수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비 수주도 크게 늘었다. 2018년 26억 6천만 원에서 2022년에는 65억7천만 원으로 증가해 지난 5년간 2.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순천향에서 글로벌 순천향으로 도약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2022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의료질평가에서 359개 기관 중에 15위, 1-나 등급을 받았고, 각종 적정성 평가에서도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서울 지역 내에서는 24개 기관 중 3위, 전국 123개 기관 중에서 12위의 기록이다. 2023년 2월에 의료기관인증조사에서는 512개 항목 중에서 511개 항목을 상을 받았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단기적으로는 감염병시설과 중환자실 및 응급의료센터를 확장하고, 지하주차장 및 교수연구환경개선사업과 유전체센터(NGS)구축, 첨단재생(세포처리)의료시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병원이 되고자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세계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 세계 유수의 병원과 경쟁하는 병원을 위해 유전자, 오믹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 맞춤 치료를 지향하고, 의생명연구 활성화와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병원, 진료 중심에서 의생명 연구로 변화 발전하는 병원,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료서비스 중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코골이가 없어서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순천향대서울병원 강나라 교수, 무수혈 상하악전진술 치료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은 옆에서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이 부럽겠지만,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도 실제로는 잘 자는 것이 아니다. 깊은 잠의 신호로 생각하는 코 고는 소리와 수면무호흡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글_이미종 순천향대 서울병원 홍보팀장 사진_순천향대 서울병원 홍보팀 제공

평소 코골이가 좀 있다는 말을 들긴 했지만 큰 불편 없이 지내던 김건우씨는 군대에 가서야 문제를 발견했다. 한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전우들이 건우 씨의 코 고는 소리에 숙면을 못하고, 어떤 때는 ‘숨이 멈출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평소 잠을 잘 잤는데도 늘 피곤한 게 수면무호흡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SNS에서 ‘수면무호흡증’, ‘코골이’를 검색했다. 엄청난 정보가 쏟아졌다. 원인도 다양하고 치료법도 다양했다. 목젓이나 혀뿌리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래턱이 짧은 무턱이나 주걱턱

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건우씨도 아래턱이 짧아 중학교 때 교정치료를 받았다. 근본 원인은 ‘아래턱이 짧아 기도를 막고 있어서 생긴 게 아닐까’하는 마음으로 휴가를 이용해 순천향대서울병원 치과를 방문했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인 강나라 교수의 진료를 받게 됐다. 마침 강나라 교수는 1년 전부터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무수혈 상하악전진술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었다.

군(軍) 휴가 이용 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강나라 교수 찾아가
강교수는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을 찾기 위해 신경과와 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신경과에서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의 질과 뇌파검사, 안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심전도 등 수면 중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했다. 소화기내과에서는 수면 내시경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이비인후과에서는 코내시경 검사를 통해 목젓이 문제가 되는지 등에 대한 검사를 했다. 치과(구강악안면외과 및 치과교정과)에서는 골격성 부정교합과 비특이성 침삼킴, 3차원 상기도 부피 검사 등을 시행했다.

관련 진료과의 협진 결과 우선은 양압기치료를 해 보기로 했다. 양압기는 통증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이 코를 통해 공기를 불어 넣어 그 압력으로 기도 폐쇄를 방지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다. 양압기 치료 후 효과는 있었지만, 불편한 것도 많았다. 군 생활이라는 특수성에 마스크 쓰듯이 착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휴대와 관리도 쉽지 않았다. 자다가 기기를 벗겨내기도 하고 불편함이 많았다. 하악전진장치를 이용하여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도 고려하였으나, 골격성 2급 부정교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치료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상하악전진술(MMA : MaxilloMandibolar Advancement) 및 이설근전진술(Genioglossus Advancement)은 흔히 말하는 양악수술의 일종으로 위턱이나 아래턱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많이 알려진 수술이지만, 턱관절과 치아교합, 안면골격이 복합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교한 치료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무턱대고 수술하거나, 자칫 잘못했다간 부정교합이 생기거나 심해질 수도 있어서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한 수술이다. CT검사 등 다양한 사전 검사를 통해 턱뼈를 어느 정도 내보낼지, 들어 보낼지를 판단해야 한다. 건우씨는 검사결과 15mm 하악골이 후퇴해 있어서 위턱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아래턱은 전방이동 및 턱 끝은 전방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상하악전진술을 위해 하악 치아 발치를 동반하는 수술 전 교정치료도 필요했다. 보통 1년 정도 걸린다.

무수혈 상하악전진술 및 이설근 전진술 시행후 완치

강교수는 1년여 교정을 마친 건우씨를 무수혈 상하악전진술 및 이설근 전진술을 시행했다. 강교수가 적용한 무수혈 수술은 순천향대서울병원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이다. 수혈을 줄이면 감염률, 재입원율, 사망률, 재수술률 등이 모두 감소한다. 마침 순천향대서울병원은 2000년 무수혈센터를 개소해 25년 가까이 무수혈 및 최소수혈 등 환자의 혈액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강나라 교수는 “우리 병원은 무수혈 및 최소수혈 관리 시스템도 우수하지만, 각 진료과 협진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의뢰하는 환자들 모두 친절하고 꼼꼼하게 봐주시고, 무엇보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전신 마취와 무수혈 수술을 많이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건우씨는 코골이가 없어졌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 잠을 많이 잤는데도 종일 피곤하던 증상도 없어졌다. 김건우 씨는 “수술이 두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우선 인상도 좋아지고, 몸도 가볍고, 코골이로 주변에 불편을 주지 않아도 돼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더 자신감이 생겼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순천향대서울병원 양악수술 및 수면무호흡 클리닉에서 수술 뿐 아니라 하악전진장치를 이용한 폐쇄성 수면무호흡 치료를 하고 있다. 치과 교정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와 협진하여 성장기 환자, 특히 7-11세 환자에서 상악골 성장을 저해하는 구호흡, 아데노이드 및 편도 과성장, 비특이성 침삼킴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정상적인 얼굴 성장을 유도하고 부정교합을 치료하고 있다.



서석조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
'SEASON 2'를 연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2021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향설서석조탄생100주년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서석조 평전'을 2021년 봄에 출간했다. 이 책은 서석조 박사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의학적·사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석조 박사의 장남인 서교일 이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진이 참여하여 국내외의 수집된 실증적 자료 검토와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박지영, 황교련이 정리 저술했다. 본지는 한국 현대 의학의 성장에 일생을 오롯이 바친 서석조 박사 삶의 완결편인 '서석조 평전'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 플랫폼'의 재발간에 이어 연재한다.

유년 시절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신과 가족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서경선은 그 해답을 교육에서 찾았다.

기독교 민족운동이 빛나던 도리원

1921년 4월 2일, 향설 서석조(徐錫助)는 부친 서경선(徐景善)과 모친 박래선(朴來仙)의 다섯째 아들로, 현재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도리원의 기독교 집안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다. 서석조의 할아버지는 갓(笠) 상인이었고 부친인 서경선 역시 그의 일을 도왔다. 서석조의 할아버지는 서경선이 16세 때 일찍 세상을 떠났다.

서경선은 그해 동갑내기인 박래선과 결혼하여 데릴사위로 처가에 들어갔다. 그들은 첫째 아들 서병욱, 둘째 아들 서석태, 셋째 딸 서순자, 넷째 딸 서석화, 다섯째 아들 서석조, 여섯째 아들 서석환, 일곱째 아들 서석균, 여덟째 아들 서석재까지 총 8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첫째와 넷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였다.

서석조가 태어난 곳인 도리원(都里院)의 지명은 고려 시대에 성립된 원(院) 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원은 고려 시대 및 조선 시대에 관원들이 출장을 갈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숙박 시설이었다. 원 제도가 처음으로 사서에 등장하는 것은 1391년으로, 정부가 원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원위전(院位田)이라는 밭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주점이나 주막이 늘어남에 따라 원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이태원, 초치원, 장호원 등의 지명만이 남았다. 도리원도 이



도리원의 서석조 생가터의 현재 모습 (출처: 동은학원 제공)



1979년 재건된 도리원교회의 현재 모습 (출처: 동은학원 제공)

러한 원들 중 하나였고, 후에 복숭아가 많이 난다 하여 복숭아도자(桃李)를 써서 한자가 도리원(桃李院)으로 바뀌었다. 낙동강의 즐기인 쌍계천과 안평천으로 둘러싸인 도리원은 본디 사람이 많지 않은 평화로운 곳이었다. 조선 전기의 문인 강희맹(姜希孟)은 도리원에 머물면서 그곳의 정취를 주제로 한 시를 짓기도 하였다.

谷遠來清澗(곡원래청간) 골짜기가 멀어서 맑은 물 흐르고
沙平沒短樣(사평몰단사) 모래가 평평해서 짧은 뗏목 없구나
問津迷處所(문진미처소) 나루를 물었으나 길을 잊어버렸고
烟火兩三家(연화양삼가) 연기 나는 곳은 두어 집뿐이다.

“연기 나는 곳은 두어 집뿐”이었던 이 한적한 마을이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에 들어서였다. 도리원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 활동의 거점 중 한 곳이 되었다. 서석조는 경북 지역의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서경선은 1914년 4월 장로가 된 후 쌍계 교회에서 독립하여 도리원 교회를 설립하였다. 도리원 교회는 도리원에 처음으로 세워진 기독교 교회였다. 당시의 교회는 하나의 종교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주요한 공동체로 기능하던 장소였다.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반발은 3·1운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발산되었다. 의성과 도리원에서는 지방들 중 이례적으로 대규모의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 서경선이 직접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의성 지역 3·1운동의 거점 중 하나인 도리원에 교회를 설립한 지역 유지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다소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도리원에서 3·1운동을 주도한 기독교계 인물들의 네트워크에는 도리원 교회의 일원 역시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서경선 역시 민족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² 이러한 그의 고민은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로 표출되었다.

부천병원이 자랑하는 국내 최고 **로봇수술** 전문가

환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편안하고 신뢰받는 진료 최우선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세상 밖으로 태어나게 해주는 일.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병원 한켠에서 대기해야 하는 산부인과는 비록 몸은 고되지만, 그 어떤 분야보다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에는 최고의 산부인과 정수호 교수가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수술 실력을 갖춘 정 교수는 항상 부천병원이 자랑하는 명의로 손꼽힌다.

글_ 전진용 사진_ 전용철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었던 정수호 교수는 어린 시절 공부 잘하는 평범한 아이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막연히 의사의 꿈을 꾸게 되었다.

“이모부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항상 소아과 교수님인 이모부께서 직접 내려와 저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이런 멋진 모습에 막연히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순천향대 학교 의대 시절에는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스터디 모임에서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선배들과 함께 간 지리산에서 계곡이 급류로 인해 불어나 2박 3일 동안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또한 젊은 의대생으로서 선배들과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수술에 자신 있던 의대생

정 교수가 산부인과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남다른 손재주에 있었다. 손재주만큼은 누구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다. “남들보다 손재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에도 항상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수술이 많은 산부인과가 저와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아픈 환자가 아닌 출산을 위해 찾는 환자가 많다는 점도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선택한 과이지만 막상 전문의가 되다 보니 힘든 점도 많았다. 생각보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큰 수술도 많았고, 항상 산모와 아이를 위해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점도 힘든 부분이었다.

“산부인과는 환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또 신뢰 관계를 쌓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환자에게는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다뤄야 하는 부분과 산모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신경 쓰며 대해야 하는 점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과와 달리 당직이 일상이라는 점도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세상 밖으로 탄생시키는 일이라는 점은 항상 보람과 자부심으로 여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편안함과 신뢰 줘야

정 교수는 여성을 상대해야 하는 과이기에 환자에 대해서 어떤 분야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환자의 보

산부인과
Obstetrics and
Gynecology



정수호

부천병원 산부인과 교수

名義我



“

로봇수술은 작은 절개만으로 매우 섬세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힘들고 복잡했던 수술들을 로봇수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수술은 이제 실비보험도 보장이 되어 환자들에게도 매우 선호도가 높습니다

”

호자인 남편이나 가족들까지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 교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의사로서 갖춰야 하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자신의 분야에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끊임없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력 외에 환자의 입장으로 볼 때 얼마나 의사로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환자를 대하지만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쌓이거든요”

정 교수에게는 요즘에도 가끔 떠올려지는 환자가 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환자지만 과거 자궁경부암으로 부천병원을 찾았던 환자이다. “자궁경부암 수술 후 많은 시간을 환

자 옆에서 최선을 다해 보살폈던 환자입니다. 환자 자신도 힘들었을 테지만 제가 옆에서 애쓰는 모습을 보며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퇴원하면서 제 손에 꾸깃꾸깃한 종이를 하나 던지시 줘여 주더군요. 만 원짜리 지폐였습니다. 비록 큰돈은 아니었지만, 환자의 고마워하는 마음이 담겼기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의사도 경험 많은 의사는 넘지 못해

정 교수가 후배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실력과 경험이다. 의사는 하루아침에 뛰어난 의사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실력을 겸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을 강조해 왔다. “아무리 똑똑한 의사라도 수술을 한 번 한 의사는 열 번 한 의사를 넘어설 수 없으며 열 번 한 의사는 백번, 천만, 만 번 한 의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많이 경험하며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정 교수는 항상 환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환자에게 맞는 진료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 “돈이 없어서 20년 동안 병원을 찾지 않아 병을 키워오는 환자, 어려운 형편으로 알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자의 여건이나 입장에 맞춰 이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들의 입장이 되어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딱한 사정에 놓인 환자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안타깝다’는 정 교수는 의사로서 모든 자신의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만 건 수술 경력의 국내 최고의 로봇수술 전문가

정 교수는 그동안 수만 건의 산부인과 수술 경력을 자랑한다. 지난 2017년 부천병원에 로봇수술이 도입된 이후에는 수많은 산부인과 로봇수술을 도맡으며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현재 부천병원 산부인과에서는 근치적 자궁적출술, 전자궁절제술, 자궁근종절제술, 자궁부속기절제 등 수술에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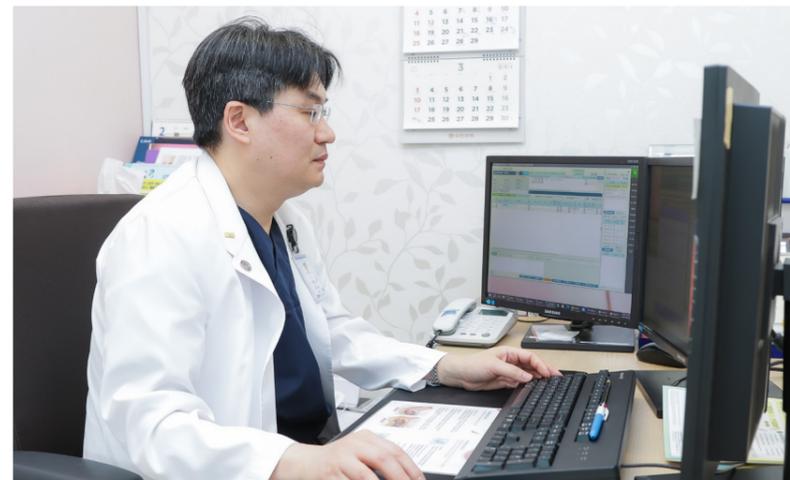
“로봇수술은 작은 절개만으로 매우 섬세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힘들고 복잡했던 수술들을 로봇수술을 통해 효과적

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시스트가 필요 없이 저 혼자만으로도 수술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로봇수술은 이제 실비보험도 보장이 되어 환자들에게도 매우 선호도가 높습니다”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가임 능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작은 구경으로 수술을 해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아 미용 면에서도 뛰어나다. 이처럼 정 교수는 매년 천 건이 넘는 로봇수술을 통해 산부인과 분야 국내 로봇수술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수술 실력을 향상하는 데에는 수술을 많이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천 건에서 천오백 건의 수술을 하다 보니 저 역시도 실력이 향상되어 온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발전 통해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것

정 교수는 산부인과 발전을 통해 예전의 위상을 되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 “순천향병원은 한 건물 전체를 모자보건센터로 사용할 정도로 산부인과가 순천향병원을 대표하는 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실력과 전문성 있는 의료진 등을 통해 다시금 예전의 위상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병원발전과 산부인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항상 잊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산부인과 환자의 80% 이상이 제 환자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의료진이 저를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를 도와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든 의료진에게 정말 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의료진과 함께 최고의 산부인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유전자와 면역력 분야의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암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연구가 주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암은 치료하기 힘들고 수술하기도 힘든 질병입니다. 산부인과에도 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암들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연구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순천향 출신, 창립 정신 이어받아 ‘환자 최우선하는 병원’으로 꼽혀

순천향대학교 출신답게 순천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내비쳤다. “모든 병원이 각자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순천향병원은 설립자의 정신이 배어 있는 병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간을 사랑하고 환자를 최우선하는 정신이 모든 교직원에게 스며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인간적인 병원, 환자가 편안한 병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병원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저희 순천향대학 출신들은 거의 실패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지 않아도 학창시절에 배운 여러 정신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매우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성공한 순천향 출신 동문들을 지켜보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학생 때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겨우 한 곳 차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어서는 기본분야부터 충실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또한 자신의 분야 연구에 끊임없이 몰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쉬는 시간이 부족해 골프를 배울 시간도 없었다는 정 교수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혼자 딱 이틀만 쉬는 것이 작은 소원”이라며 웃었다. ■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충남지역 최초 로봇수술센터

최첨단 '다빈치Xi' 로봇수술기 도입으로 수술 최적화



AI와 로봇의 전성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의학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특히 수술 분야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보다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수술이 더욱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 2월 로봇수술센터를 개원했다. 그동안 구조적, 공간적 어려움으로 센터를 운영하지 못했지만 새병원 오픈을 앞두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수술센터를 오픈하게 된 것이다.

글. 전진용 사진. 전용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올해 충남지역 최초로 로봇 수술기 '다빈치Xi'를 도입했다. 새병원 오픈을 앞두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로봇수술의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실 천안병원은 이미 로봇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춘 상태였다. 5년 전부터 TFT팀을 구성해 로봇수술센터 오픈을 준비해 왔으면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등 로봇수술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최고 전문의로 구성된 팀을 구축해 왔다. 여기에 전문 코디네이터와 경험 많은 의료진이 더해져 향후 중부지역 로봇수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세대 최첨단 로봇 수술기 '다빈치Xi' 장착

천안병원 로봇수술센터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수술의 정밀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시스템인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장착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다빈치 로봇수술기는 4개의 로봇 팔, 3D HD 영상시스템, 조정 콘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동화 로봇수술 시스템인 다빈치 로봇수술은 집도 의사가 수술방에서 별도의 조작 콘솔에서 고화질 입체 영상을 보며 로봇 팔을 조종해 매우 세밀한 수술을 시행한다. 의사의 손을 대신하는 로봇 팔은 사람 손처럼 유연하면서도 떨림이 없어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을 제공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최대 15배 확대된 3D HD 영상을 통해 집도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 부위 확인은 물론 정교한 로봇 팔 조종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로봇수술은 매년 50% 이상 수술환자

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어시스트 없이 집도의 혼자서도 수술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산부인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외과 등 전 영역에 적용

천안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지난 2월 첫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로봇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로봇수술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비뇨의학과 수술에 최적화된 수술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로봇의 발전과 수술기법의 발달로 인해 비뇨의학과 뿐 아니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안병원 로봇수술센터 역시 이런 추세에 맞춰 로봇수술이 최적화될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해 수술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부인과에서는 근치적 자궁적출술, 전 자궁절제술, 자궁근종절제술, 자궁부속기절제 등에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비인후과에서는 각종 두경부암 등의 수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비뇨의학과는 거의 모든 수술에 적용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외과적으로는 장기이식 수술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담 로봇수술센터장은 "로봇수술은 무조건적인 수술이 아닌 가장 적합한 사례에 한해서 각종 암 수술과 고난도 수술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정교한 수술 ▲작은 절개 ▲적은 통증 ▲낮은 출혈 및 감염 위험 ▲짧은 회복 기간 ▲빠른 일상 복귀 등 많은 장점이 입증된 로봇수술 기인 만큼 지역 내 환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i INTERVIEW

전섭
로봇수술센터 센터장(산부인과 교수)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센터 될 것

올해 오픈한 천안병원 로봇수술센터의 센터장인 전섭 교수는 부인암(자궁암, 난소암), 부인종양(자궁근종, 난소종양), 복강경(자궁경) 수술의 최고 전문가이다. 이번 로봇수술센터 오픈과 함께 환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수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저희 천안병원은 오래전부터 로봇수술센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소 오래된 건물과 공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오픈이 다소 늦었지만 새병원 오픈과 함께 본격적으로 지역 내 환자들의 니즈에 맞춰 로봇수술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교수는 산부인과 측면에서도 그동안 환자들의 니즈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전을 제외한 중부권 유일의 로봇수술센터 인 만큼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신 수술이기에 의사입장에서는 학문적, 연구적인 측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환자입장에서는 그동안 복강경수술로는 한계가 있어 시행되던 개복수술을 대체할 수 있어 더욱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월 20일 개원한 로봇수술센터는 2월 26일 첫 수술을 시작으로 현재 20여 건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 전 교수는 “이제는 로봇수술을 받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서울, 경기권으로 갈 필요 없이 내 지역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로컬병원이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글로벌’ 병원으로 발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미용적·기능적 후유증 최소화하는 완벽한 수술

박재홍 교수는 천안병원 로봇수술센터에서 첫 번째 수술을 담당했다. 또한, 박 교수는 국내에서 이미 인정받는 손꼽히는 로봇수술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두경부암이나 갑상선암은 목 안의 좁은 부분에 생기는 암입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은 다른 나라 환자들에 비해 목에 더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직업적으로나 환자 개인의 외모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하여 흉터를 피하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로봇수술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같은 위험도와 같은 합병 정도가 있다면 로봇수술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육안보다 10배로 확대해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고 흉터를 최소화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 설명했다. “로봇 유무가 병원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는 이런 환자들의 니즈에 부합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술로 연간 500~7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최첨단 수술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로봇수술센터 개원의 의의 중 하나라고 전했다. “수술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화장실서 수술 부위를 거울을 통해 볼 때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구요. 효과적이고 완벽한 수술로 환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홍
로봇수술센터 부센터장
(이비인후과 교수)



배상호
외과계진료부장
장기이식센터장(외과 교수)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중부권 최고의 센터 만들 것

배상호 교수는 로봇수술센터 뿐 아니라 장기이식센터장도 맡고 있다. 간암, 담도암, 췌장암수술, 간이식, 신장이식 전문가인 배 교수는 천안병원 장기이식센터장으로 오랜 기간 지역 내 장기이식 수술의 핵심을 담당해 왔다. 이번 로봇수술센터 개원을 통해 그동안의 여러 전문수술 분야에 로봇수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생각이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수술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로봇수술은 인간의 손보다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기에 더 많은 수술 분야에 적용될 것입니다. 추후 장기이식 수술 분야에도 로봇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 교수는 “천안병원 로봇수술센터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 교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는 사례에 한해서 보다 많은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천안병원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에 중부권 최고의 센터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분야 개척자 될 것

이효진 코디네이터는 로봇수술센터에서 수술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로봇수술에 대한 상담부터 적합성과 효과성 분석, 보험청구와 수술 비용 등 환자가 알아야 하고 궁금해하는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 코디네이터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상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봇수술의 경우 고가의 수술이기에 환자가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 보험 관련 등 비유적인 측면부터 여러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코디네이션은 “현재 센터를 계속 세팅 중인 상태라 업무가 많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며 “코디네이터로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지역 내 최고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웃었다.

이효진
로봇수술센터 코디네이터



양희조
비뇨의학과 교수



로봇수술은 비뇨의학과 수술에 최적화된 플랫폼

양희조 비뇨의학과 교수는 천안병원 로봇수술센터에서 가장 많은 맘을 흘려야 할 인물이다. 로봇수술이 가장 처음 적용된 분야이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비뇨의학과이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도 로봇수술을 비뇨의학과 수술에 가장 많이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어찌 보면 로봇수술을 빼고 비뇨의학과 수술을 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금 늦게 도입된 부분은 아쉽지만, 이제는 많은 환자들에게 더 좋은 수술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쁩니다.” 현재 비뇨의학과에서 진행되는 고난도의 수술들은 로봇수술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미 고난이도의 수술들의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도입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천안병원 로봇수술센터에서도 이제 많은 고난이도 비뇨의학과 수술을 로봇수술로 대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 교수는 “그동안 로봇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야 했던 많은 지역 환자들이 이제는 마음 편히 천안병원을 찾아 로봇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쁘다”며 “더 많은 노력과 경험을 통해 환자들에게 최고의 수술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사회 구석구석

어둠을 밝혀주는 선한 영향력



우리 주변에는 성공한 기업인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경영에 힘쓰다 보니 지역사회의 어두운 구석까지 살피기는 그리 쉽지 않다. 구미에는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선한 영향력으로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기업인이 있다. 구미공단에 위치한 기업, (주)대경테크노의 곽현근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글_ 전진용 사진_ 전용철

곽현근 대표의 대경테크노는 뿌리 산업이라 불리는 부품제조 기업으로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18살 때부터 배운 일로 직장생활 24년을 뒤로하고 창업해 지금의 기업을 일궈냈다. “41살 때 부인과 직원 한 명을 포함하여 세 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리먼 사태, 2018년 최저임금 급상승 등 고비도 있었지만 나름 잘 키워 온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0명의 정규직, 아웃소싱 인원 60명을 거느린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520억원의 최대흑자를 기록했다.

기업도 사람과 사람이 사는 작은 세상

기업가로서 성공 비결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기업 역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당 500원 받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힘들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존경받는 부모이자 귀한 자식들입니다. 모든 직원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직원들의 복지에도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있다. 사원 주택을 지원해주

고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할 때는 수백만 원의 장학금도 지원한다. 좋은 성과에 따라 성과급도 준다. “직원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시설, 청결한 환경에서 근무토록 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직장 역시 모두가 함께하는 일터이자 쉼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 이웃을 위하다

곽 대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를 받았다. 함께 악수를 나누고 사진도 찍었다. 기업인으로서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가로서 초대를 받았다. 회원 10만 명, 17개 조직을 가진 통일운동 단체의 의장이기 때문이다. “1970년 반강제적인 분단의 역사가 아닌 통일된 아름다운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1981년 창설된 단체입니다. 통일되는 순간까지 빠가 으스스하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기부활동 역시 곽 대표의 일상이 되었다. 결혼 전 총각 시절부터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에서도 조용히



주변의 아이들을 도와왔다. “198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에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지원해 왔습니다. 못 먹고 살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과자라도 사 먹으라는 순수한 심정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결혼 후에는 모교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17개 단체에 기부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구미병원과 ‘햇살아이지원센터’와의 아름다운 인연

경제인협회 활동 중 우연히 소개 받아 알게 된 구미병원 ‘햇살아이지원센터’는 곽 대표에게 아름다운 인연이 되고 있다. 2023년부터 ‘햇살아이지원센터’ 이사를 맡으면서 구미병원과 기업, 경제단체 등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며 구미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지원하고 있다.

“보기보다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거든요. 가정에서 방임된 채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취약 계층의 아이들을 돕는 햇살아이지원센터와 같은 곳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연말, 햇살아이지원센터 이사회와 구미병원 교직원들이 함께 바자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교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故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생명존중’의 순천향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고 인간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구미병원 이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더욱 발전시켜 지역의 중심이 되는 최종 거점병원으로 확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기업인으로서 더 많은 기업이 이런 사회공헌사업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도 밝혔다. “사실 훌륭한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업을 더욱 다양한 분야에 알려 더 많은 성공한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고 함께 시너지를 창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 대표는 “5~10년 안에 기업을 상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더 훌륭한 기업으로 키워 구미병원과 함께 지역 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SCH
ISSUE



항생제 내성도 주의, 세균성장염 일으키는 '캠필로박터감염' 증가

백예지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팀 논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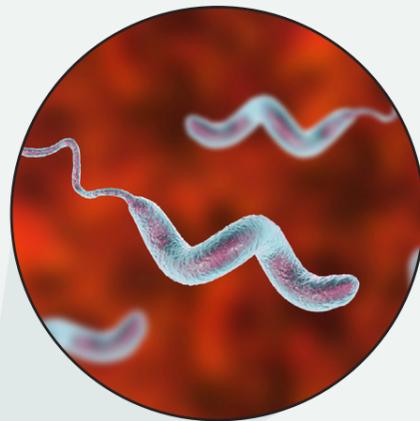
오염된 가금류 섭취를 통해 세균성 장염을 일으키는 캠필로박터 감염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캠필로박터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발열,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중증의 혈류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예지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김정호 세브란스병원 교수 연구팀은 7개 의료기관에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캠필로박터균혈증 성인 환자의 자료를 수집, 시계열 경향성, 임상적 특성과 예후, 항생제 감수성 등을 분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캠필로박터 감염 건수와도 비교했다. 연구를 위해 수집한 캠필로박터 혈류감염 건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얻은 캠필로박터 장염 건수를 비교(그림)한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동일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 캠필로박터가 점차 인체 감염증의 중요한 병원균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예지 교수는 “감염이 증가하는 이유는 캠필로박터가 가금류 이외에 다른 동물들을 숙주로 전파되기도 하고, 애완동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도 있



기 때문이고, 기후변화와 야외 물놀이 활동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위한 분석한 대상 환자는 총 108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9세, 남성이 72%(78명)였다. 주요 증상은 열이 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서 복통(44%)과 설사(44%)가 흔한 증상으로 나타났다. 열 이외의 다른 증상은 없는 경우도 16%나 되었다.

동물과 인체 건강 함께 접근하는 '원헬스'적 관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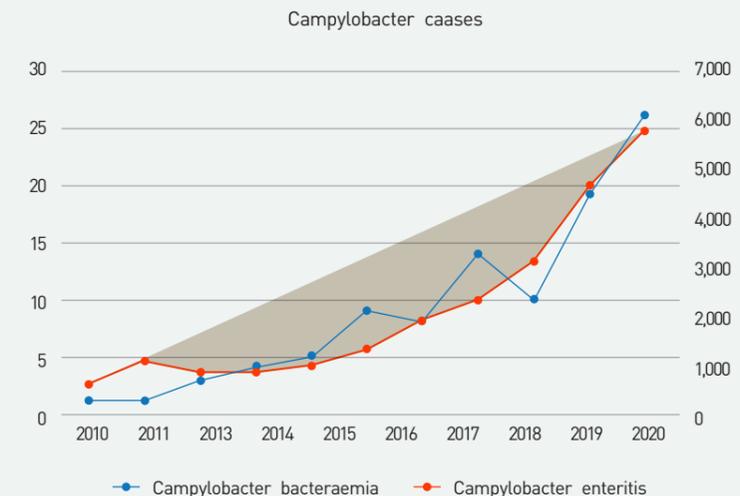
균종 중 캠필로박터 제주니(C. jejuni)가 있는 경우 장염 증상이 다른 균종보다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캠필로박터 피터스(C. fetus)는 봉와직염이나 골관절 감염, 혈관 내 감염 등이 나타날 수 있었다.

전체 환자 중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은 비율은 25.7%로 낮은 편이었고, 사망과 관련한 위험 요인은 압과 같은 기저질환과 패혈성 쇼크 상태가 유의미했다. 항생제 감수성 결과는 퀴놀론 계열 내성이 59%로 높았고, 마이크로라이드 계열은 4%로 낮았다. 특히 균종이 C. jejuni일 때는 퀴놀론 내성이 68%에 이르렀다.

백예지 교수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체 및 가축 등에 투여되는 항생제 사용량이 늘면서 퀴놀론 계열 내성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며 “항생

제 내성은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과 인체의 건강을 함께 접근하는 '원헬스'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캠필로박터 감염시 첫 번째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로 시작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캠필로박터 장염 때 항생제 치료는 단지 소화기 증상을 1.3일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증의 취약한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적절한 항생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예지·김정호 교수팀의 논문 ‘캠필로박터균혈증의 경향, 임상적 특성, 항균제 감수성 패턴 및 결과: 다중 중심 후향적 연구(Trends, clinical characteristics,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patterns, and outcomes of Campylobacter bacteraemia: a multicentre retrospective study)’는 Infection 저널 2023년 11월호에 게재했다. SCH



백예지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김정호 세브란스병원감염내과

SCH ISSUE

부천병원

'처음 오신 분 전용 창구' 신설로 환자 편의 높인다



1월 9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처음 오신 분 전용 창구' 오픈식에서 참석자들이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좌측부터 순천향대 부천병원 박종희 간호부장, 이종식 사무처장, 이유경 연구부원장, 문중호 병원장,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김병성 진료부원장, 조영순 진료협력센터장, 서진희 진료협력팀장)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최근 병원을 처음 방문한 환자를 위한 '처음오신분 전용 창구'를 신설하고 환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진료협력센터는 병원이 낯선 첫 방문 환자의 편의를 위해 '처음오신분 전용 창구'를 운영하여 상담부터 진료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행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진료과와 검사실로 이동할 때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며, '처음오신분 목걸이'는 병원 직원 모두가 처음 오신 환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

도록 해 맞춤형 소통과 차별화된 환자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예약시스템을 강화하여 중증 및 응급 신규 환자는 당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3일 이내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진료협력센터는 신속한 환자 의뢰를 위한 '협력병원 원장님 전용 전화 라인'과 '24시간 진료과별 직통라인(Hot Line)'을 신설하는 등 협력병원들과의 원활한 진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중호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병원에 처음으로 방문한 환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 오신 분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환자가 더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SCH ISSUE

부천병원

'여성암 맞춤 치료' 앞장선다

부천병원이 여성암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암센터'를 출범하고 유방암·갑상선암·부인암 치료 특성화에 나선다.

부천병원은 2016년부터 본관 2층에 유방센터, 산부인과, 성형외과를 한 공간에 모아 여성 환자들의 진료 편의성을 극대화한 여성의학센터를 운영해 왔다. 최근 유방암, 갑상선암, 부인암 등 주요 여성암 발생률 증가에 따라, 센터 이름을 '여성암센터'로 변경하고 질환별 맞춤 치료를 강화한다.

산부인과는 흉터에 민감한 여성 질환 환자를 위해 최소침습 수술을 지향하고 있다.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 시행하는 단일 공 복강경 수술은 물론, 0.8cm 절개 4~5개로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로봇수술은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빨라 흉터에 민감한 여성 환자 만족도가 높다. 부인암 로봇수술 전문가인 산부인과 정수호 교수가 부인암 최소침습 수술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의료진 2명을 추가로 영입해 더 차별화된 부인암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에는 2.5cm 작은 절개 하나로 수술하는 최신행 로봇수술기 '다빈치SP'를 도입해,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로봇수술도 가능할 전망이다.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높아 '착한 암'으로 알려졌지만, 치료 후 삶의 질에 신경 써야 하는 암이기도 하다. 센터는 갑상선암 치료를 담당하는 진료과가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 후 삶까지 고려한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고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

수술적 치료 시 기존에는 아랫목 피부를 절개해 수술했지만, 최근에는 흉터 없이 치료하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도 가능해 환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해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유방센터는 유방암에 대한 여성의 민감도를 고려해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 내부에 진료실 외에도 유방 검사 공간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바쁜 직장인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토요일에도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유방전절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성형외과와 연계해 유방 재건술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성 질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방보존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흉터 및 수술 후 유방변형을 최소화하면서도 종양학적으로도 안전한 수술법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유방암과 관련된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모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 진료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SCH ISSUE

천안병원

천안병원 전문성 높이는 3인의 '초빙 名醫 트로이카'

“인생 2막을 충청에서, 환자위해 역량 열정 쏟아 부는다”

천안병원에는 특별한 초빙 교수 3인이 있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로 손꼽히는 교수들이다. 이들 '초빙 명의 트로이카'는 각자의 진료영역에서 순천향대천안병원의 전문성을 한껏 높였다. 내분비내과 이명식 교수, 안과 운영훈 교수, 피부과 서성준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각기 다른 대학병원에서 정년퇴직 이후 인생 제2막을 천안에서 시작했다. 초빙 명의 트로이카는 각자 보유한 뛰어난 역량과 뜨거운 열정을 충청의 환자들을 위해 쏟아 부어 주고 있다. 충청환자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초빙 명의 트로이카를 소개한다.

이명식 교수, 당뇨병 및 대사질환 명의

내분비내과 이명식 교수는 당뇨병 및 대사질환 치료에 정통한 의과계 '스타 의과학자'다. 전세계 의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찾으려 했던 당뇨병과 대사질환에 영향을 주는 각종 물질들을 규명해 명성을 날리던 장본인이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정년퇴임 후 2022년 3월부터 천안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당뇨병학회장, 대한면역학회장 등을 역임역임했으며, 대한민국학술원 중신회원이다.



운영훈 교수, 망막질환 치료 명의

안과 운영훈 교수는 망막질환 치료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정년퇴임 후 2022년 12월부터 천안병원에서 망막, 유리체, 포도막 질환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부속 스케펜스 안연구소, 일본 나고야대학병원 안과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선두에서 우리나라 안과학 발전을 이끌어 왔다. 대한안과학회장, 한중일안과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서성준 교수, 아토피피부염 명의

피부과 서성준 교수는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 권위자다. 중앙대병원에서 정년퇴임 후 올해 3월 천안병원에 새 등지를 틀었다. 의과계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이며,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장, 대한피부과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EBS TV 프로그램 '명의'에도 소개된 바 있는 서 교수는 특히 아토피피부염 영역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SCH ISSUE

천안병원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천안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돌봄서비스는 ▲통증 및 증상관리 자문 ▲심리사회적·영적 돌봄 ▲생애 말기 돌봄 및 상담 ▲자원 연계 및 경제적 지원 ▲임종 준비 교육 및 돌봄 지원 ▲호스피스 병동입원(말기 암 환자 대상) 및 재가 서비스 연계 등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말기의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이다.

박형국 병원장은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 받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세심하고 전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병원 호스피스팀은 전문의 9명(종양혈액내과 2명, 방사선종양학과 3명, 소화기내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3명), 전담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SCH
ISSUE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지역 유일 5회 연속 최우수 S등급' 획득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5년 연속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병원장 민경대)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3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분야(▲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 훈련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종합화 등)와 업무성과 분야(▲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신규 발굴율 ▲고객만족도 ▲그 밖에 제반 사항 ▲직업병 감시체계 등)의 총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에 이어 2023년에도 S등급을 받아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5회 연속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 향상을 위해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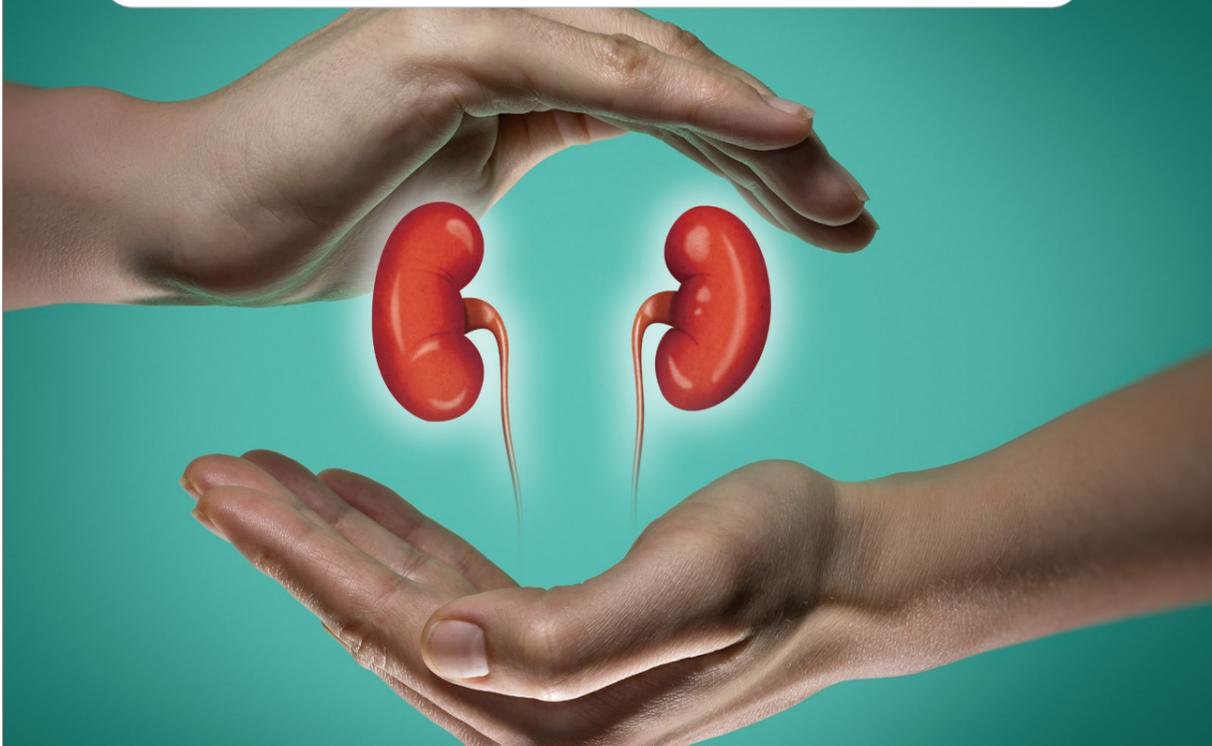
민경대 병원장은 “우리병원은 1983년 특수검진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체와 유기적인 협력과 최고 수준의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H



SGLT2억제제, 만성콩팥병 환자의 콩팥 손상 줄인다

당뇨병, 단백뇨 양에 상관없이 효과

순천향대서울병원 조정연·권순호·두승환 교수팀 연구



당뇨병 치료제인 SGLT2 억제제가 당뇨병 유무나 단백뇨의 양에 상관없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콩팥 손상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장내과 조정연, 권순호 교수와 비뇨의학과 두승환 교수팀은 비 당뇨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SGLT2 억제제인 다파글리플로진을 투여한 후, 6개월 뒤에 신장 손상 정도를 반영하는 바이오마커들이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기존의 대규모 임상연구에서도 다량의 단백뇨가 나오는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SGLT2 억제제가 당뇨와 비 당뇨성 콩팥병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심혈관 합병증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소량의 단백뇨가 나오는 환자와 비 당뇨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SGLT2 억제제의 임상적 유용성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순천향대서울병원 연구팀은 건강한 자원자(정상 대조군)와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만성콩팥병 환자들은 단백뇨 정도에 따라 확실하게 단백뇨가 있는 그룹과 미세한 단백뇨가 있는 그룹으로 나눠 다파글리플로진 치료 결과를 비교했다.

치료 전, 치료 3개월, 치료 6개월 후에 각 소변의 샘플을 수집, 신장의 미토콘드리아 손상 정도를 대변하는 바이오마커(mtDNA)와 콩팥의 염증 상태(KIM-1, IL-1β)를 반영하는 바이오마커를 비교한 결과, 6개월 후에 두 바이오마커가 모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흔한 사구체염 질환인 IgA콩팥병에서는 다파글리플로진 투여 후 3개월 만에 콩팥 손상 바이오마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논문의 교신저자인 권순호 교수는 “당뇨병의 유무와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정도, 단백뇨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만성콩팥병에서 SGLT2 억제제가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약제의 임상 적응증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문은 미국임상약리학회 공식학술지인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에 'Dapagliflozin Reduces Urinary Kidney Injury Biomarkers in Chronic Kidney Disease Irrespective of Albuminuria Level'이란 제목으로 게재했다. [▶](#)



순천향대서울병원 권순호 신장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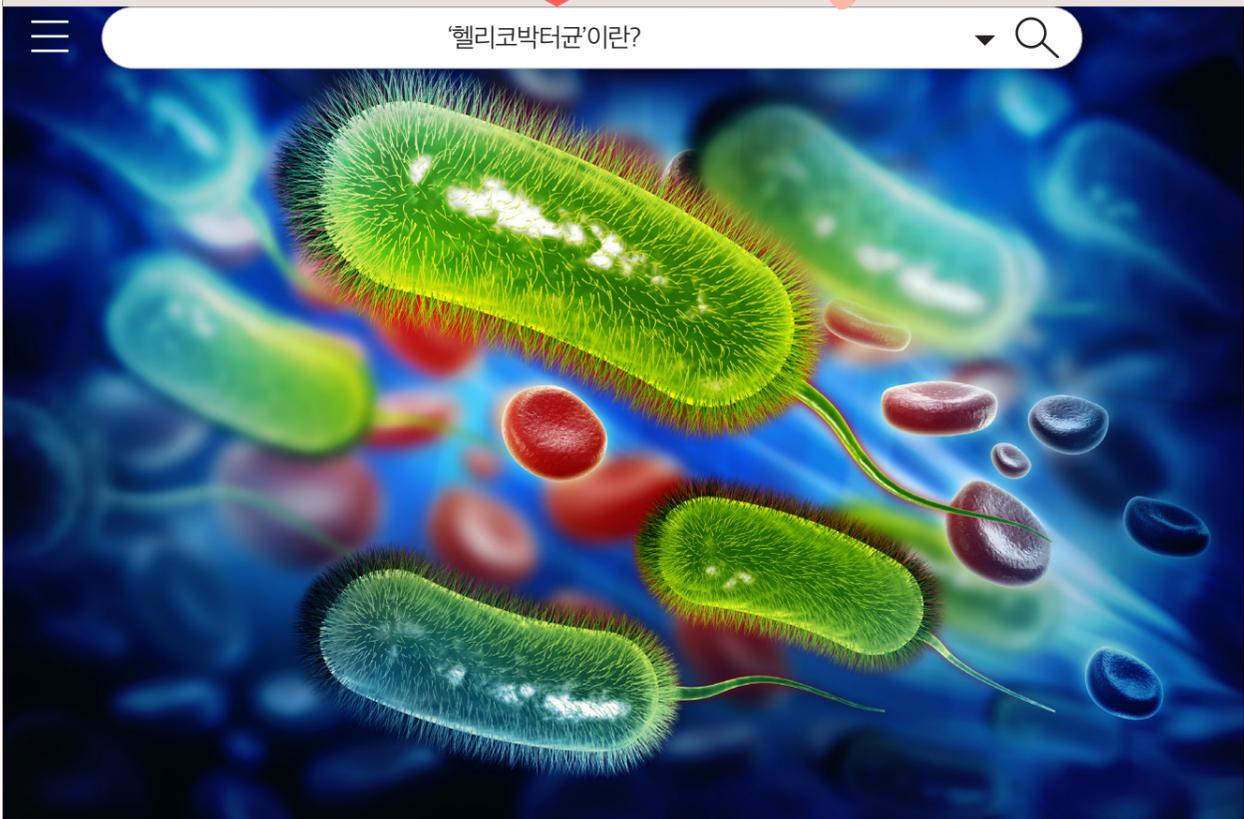


조정연 신장내과 교수



두승환 비뇨의학과 교수

위 선종 환자,
내시경 절제 후
'헬리코박터균' 없애면
위암 발생 위험 감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홍수진 교수팀(김신희·유혜원 교수)이 최근 위 선종의 내시경 절제 이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후 위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약 12%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소화기 내시경 분야 최고 권위 'Gastroenterology' 게재 쾌거

이번 연구 결과는 논문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29.4에 달하는 소화기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 의학 저널인 'Gastroenterology' 2월 호에 게재됐다.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절제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위암 재발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잘 알려졌지만, 위암의 전구병변인 위 선종의 내시경 절제술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시 위암 예방 효과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위 선종을 진단받고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한 성인 환자 69,722명을 대상으로 전국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위 선종 내시경 절제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받지 않은 환자보다 위암 발생률이 약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는 치료 3년 후 약 16%, 5년 후 약 20%로,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는 위암뿐 아니라 시술 후 새로운 위 선종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규모 데이터 분석으로 밝혀낸 세계 최초 결과

위 선종의 내시경 절제술 시행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으로 밝혀낸 것은 세계 최초다. 본 논문의 1저자인 유혜원 교수는 "위 선종은 내시경 치료가 권고되나, 내시경 절제 후 위 점막에서 위암 발생률이 9.3%에 달해 위 선종을 절제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위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로 알려졌으나, 아직 위 선종의 내시경 절제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받은 환자의 위암 예방 효과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홍수진 교수는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 결과가 소화기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지에 실린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번 연구가 위 선종 및 위암의 적절한 치료 가이드라인 확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진료와 연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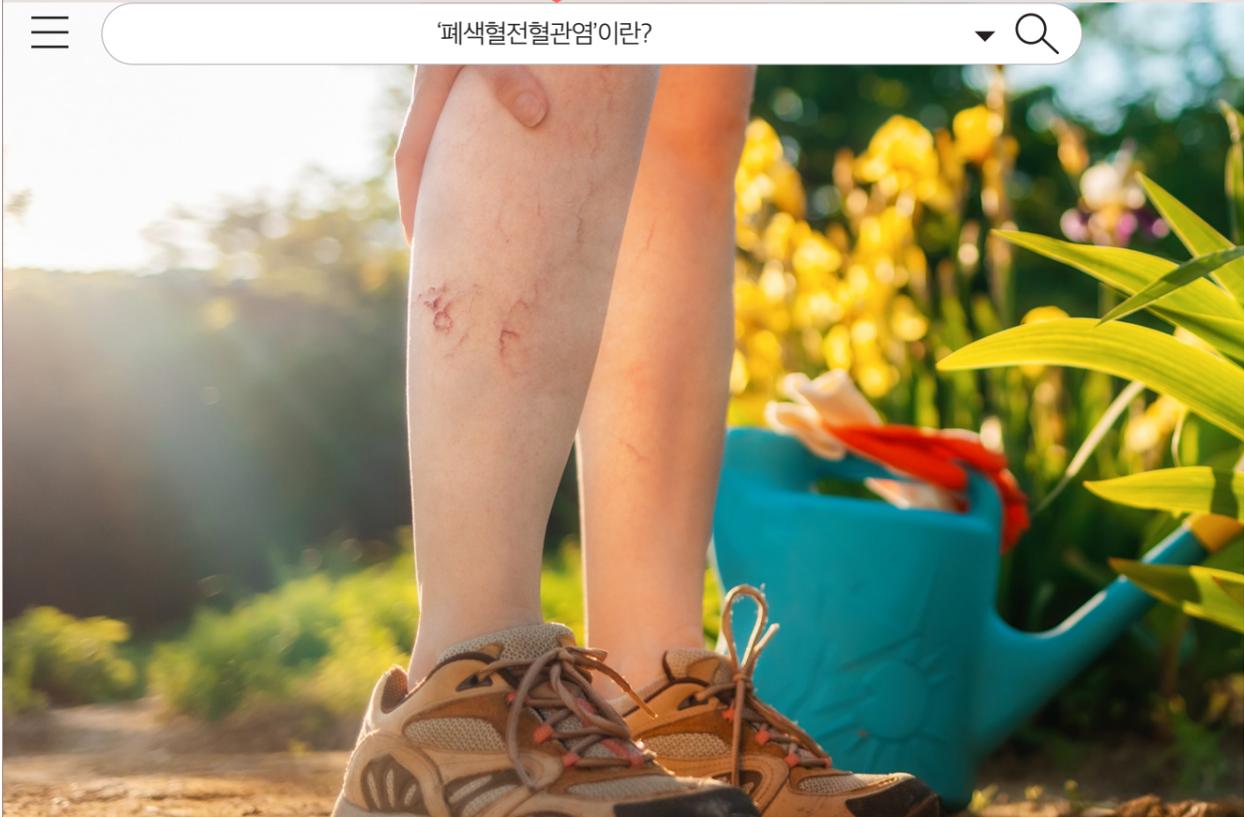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유혜원 소화기내과 교수 홍수진 소화기내과 교수 김신희 소화기내과 교수

손발 절단 부르는 '폐색혈전혈관염' 금연으로 예방해야



'폐색혈전혈관염'이란?



폐색혈전혈관염은 손발의 동맥과 정맥에 염증이 생기고 폐쇄돼 조직에 과사가 진행되는 질병이다. 염증이 사지의 소동맥이나 중간 크기의 동맥을 침범하는 것으로 버거병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일본, 중동, 특히 유대인에게서 발병률이 높고, 북미나 유럽에서는 발생률이 낮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투수였던 송창식 선수가 폐색혈전혈관염을 앓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허혈로 발생해 절단까지 간다

사지 말단부, 즉 손발 끝에 허혈로 인해 초기에는 손과 발이 창백해지고, 마비가 오거나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피부가 푸른색, 검붉은 색으로 변하고, 파행증, 궤양, 괴저 등의 증상을 보인다. 환자의 허혈성 병변이 지속되고, 과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사지 절단이 필요할 수 있다.

폐색혈전혈관염은 전체 환자 중 10%는 상지에서, 50%는 하지에서 이환되고, 40%는 상지와 하지 모두 이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는 발과 다리 때로는 팔과 손의 파행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정형외과적 증상으로 오인되어 진단이 늦어지기도 한다.

젊은 흡연 남성 위험 커

폐색혈전혈관염은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원인은 없다. 하지만 흡연과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흡연력이 있는 젊은 남성에게서 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유전적 소인, 면역, 과응고 상태, 혈관의 내피기능장애, 구강 감염 등도 원인일 수 있다.



색전증, 당뇨병 등과 감별해야

폐색혈전혈관염은 여러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진단이 쉽지 않다. 먼저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말단 사지에 허혈 증상이 있고, 흡연력이 있는 45세 이하의 젊은 환자를 가장 먼저 의심한다. 이후 색전증, 동맥경화증, 자가면역질환, 당뇨, 혈액 응고항진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유사 질환들과 구분하기 위한 혈액검사, 근위부의 색전 원인 여부를 관찰하는 심초음파, 동맥경화나 동맥류 등을 확인하는 동맥조영술 또는 전산화단층동맥조영술을 진행한다.

치료 시작은 금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이다. 폐색혈전혈관염은 담배를 피우는 횟수나 종류와 상관없이 발병하며, 심지어 금연보조제인 니코틴 패치, 껌 등에 의해서 발병될 수도 있어 모두 피해야 한다. 파행이 발생한 환자는 평균 30분 정도로 주 3~5회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이는 통증 없이 보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지나친 운동은 도리어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관외과 전문의의 지도로 조절이 필요하다.

약물 및 수술로 치료

병원에서는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진행한다. 약물치료로는 혈관 확장을 유도하는 혈관확장제, 염증을 완화해주는 소염제, 2차 세균감염이 발생한 경우 항생제 등이 처방된다. 수술적 치료로는 막힌 동맥에 길을 만들어주는 우회로술을 시행해 볼 수 있다. 또 말초혈관질환에 신경을 차단하는 교감신경차단술도 있다. 최근에는 자기골수세포이식과 혈관내피 성장인자의 근육 내 주사를 놓는 새로운 치료법도 시도되고 있다. 



이현용 외과 교수 순천향대천안병원

방치하면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진행 단계와 시기에 따라
 치료방법 달리해야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수록 발병률이 증가



당뇨병 환자인 40대 김씨는 눈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나 혈당조절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 내과 주치의의 권유로 안과를 찾았다. 약간의 노안 증상 이외에는 딱히 불편함이 없었던 김씨는 이날 생전 처음 시행한 안과 정밀검사 후,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았다. 당뇨망막병증은 어떤 안질환이기에 당뇨병 환자가 조심해야 할까?

당뇨망막병증은 녹내장, 황반변성과 더불어 3대 실명질환 중 하나이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수록 발병률이 증가한다. 소아 당뇨인 1형 당뇨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에서 15년 이내에 당뇨망막병증이 합병증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성인 당뇨인 2형 당뇨의 경우 15년이 지나면 약 80%에서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망막이란 안구 가장 안쪽에 있는 시신경이 분포한 얇은 신경조직으로 사물을 인식해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망막에 미세혈류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차츰 망막 혈관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와 심각한 시력 손상을 일으킨다.

신생혈관 유무로 병기 나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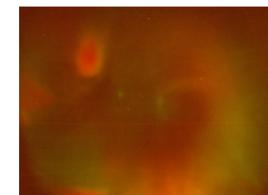
당뇨망막병증은 신생혈관 발생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의 미세혈관이 약해져 혈관이 막히거나 미세 출혈이 발생하면서 망막의 영양 공급이 저하되게 된다. 이는 당뇨망막병증의 초기 단계라 볼 수 있어 심각한 시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시력의 중심부를 담당하는 황반에 삼출물이 증가하고 부종이 발생하는 ‘당뇨황반부종’이 동반된 경우 심각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다.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적절한 치료 없이 진행된다면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악화 될 수 있다. 증

식성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의 영양공급 악화의 진행으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증식하는 단계이다. 이는 정상 혈관이 아니라서 매우 쉽게 찢어지고 파열되면서 ‘유리체출혈’이나 ‘건인망막박리’로 이어져 심각한 시력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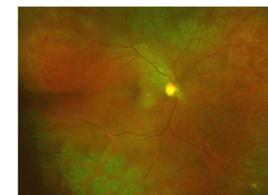
질환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달라

당뇨망막병증은 진행 단계와 시기에 따라 치료방법이 조금씩 다르며 다음 세 가지 치료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안구내 주사치료(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 스테로이드) ▲레이저 치료 ▲유리체 절제술(수술적 치료) 등이 있다. 안구내 주사치료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억제제 및 스테로이드제를 주입해 약해진 망막의 혈관 벽을 회복시켜 당뇨황반부종을 가라앉히고 신생혈관의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서 주사 치료는 신생혈관의 생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유리체 출혈 진행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당뇨황반부종의 경우 반복적으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데 만약 안과 전문의와 상의 없이 주사를 중단하면 질환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레이저 치료는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이나 증식 당뇨망막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한다. 시세포가 밀집된 중심부 망막을 제외한 주변부 망막 전체에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유리체 출혈로 인한 심각한 시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유리체 절제술은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박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출혈로 인해 혼탁해진 유리체를 제거하고 망막에 생긴 새로운 혈관과 증식막을 제거하는 수술로 섬세하고 정교한 수술이다.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안과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유리체출혈이 발생한 안저사진



수술(유리체절제술)을 통해 출혈이 제거된 상태



손원영 안과 교수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3세대 듀얼 소스 CT '소마톰 포스 CT' Somatom Force CT

특장점

3세대 듀얼 소스 CT는 가장 최신 CT로 빠른 검사와 최소 방사선 피폭, 정확한 영상진단이 특징이다. 두 개의 X-선관과 두 개의 측정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튜브(Dual Source) 방식이 적용돼 기존 CT 장비에 비해 선명하고 입체적인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약 0.3mm의 미세한 병변까지 발견할 수 있어 뇌, 심장, 복부 등 모든 영상의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초당 약 74cm의 빠른 촬영 속도로 심장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 어린이, 무의식 환자, 응급환자처럼 숨을 참기 어려워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가 가능하다. 빠른 진단이 필요한 외상응급환자, 소아환자, 신부전환자, 중환자 등에게 신속한 촬영을 제공할 수 있다. 저선량 X-선과 소량의 조영제만으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방사선 피폭량이 적고, 심장박동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했던 진정제나 배타차단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도 조영제 부작용을 최소화해 보다 안전한 검사가 가능하다.



특징

- 기존 CT 대비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심장촬영 가능
심박수가 빠른 소아 및 부정맥이 있는 환자도 정확한 심장촬영이 가능
- 기존 MDCT 대비 최대 1/10의 방사선량으로 전체 심장 촬영 가능
1mSv 이하의 방사선량으로 촬영 가능
- 한번의 CT 검사로 심장, 폐동맥, 대동맥의 이상 유무를 진단
- 다양한 피폭 감소 기능 제공
방사선에 민감한 여성의 가슴이나 눈과 같은 특정 인체 부분에 피폭량을 낮추며, 낮은 관전압을 이용하는 기능으로 피폭량 감소 가능
- 두개의 다중튜브를 사용한 Dual Energy 영상 획득 가능
서로 다른 2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능으로 조직 및 물질을 분화, 특징화, 분리, 구별 가능

검사 종류

- 심장 CT 검사
심박수가 빠른 소아 및 부정맥이 있는 환자도 정확하게 심장촬영이 가능
- 혈관 조영 검사
경부의 혈관이나 협착의 검사가 가능하며 신체 각 부위의 혈관의 염증 또는 대동맥류를 2차원 또는 3차원 영상으로 진단이 가능
- 심장, 폐동맥, 대동맥 한번의 검사
한번의 심장, 폐동맥, 대동맥의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영상을 획득하여 급성환자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
- 새로운 저선량 기법인 주석 필터(Sn100kVp)를 추가로 탑재하여 저선량으로 흉부 검사 가능(약 0.1mSv의 최소의 선량으로 흉부 CT 검사 가능)
- Dual Energy
기존의 CT 장비에서 영상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의 다양한 영상 획득 가능

순천향대중앙의료원-대우재단, 캄보디아 의사 3명 초청연수 시행 - 대한병원협회 주관 글로벌 보건의료사업 프로그램 착수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서유성 의료원장)은 1월 16일 청원홀에서 한국에 입국한 캄보디아 의사 3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환영회를 개최했다. 대우재단이 주최하고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보건의료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들은 캄보디아 시애틀 주립병원과 양동영 병원 소속의 신경외과, 심장내과, 이비인후과 의사다. 2024년 4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한국에서 높은 수준의 의학교육을 받게 된다. 글로벌 보건의료사업 프로그램은 대우재단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대한병원협회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캄보디아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진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을 연수기관으로 선정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순천향중앙의료원 Q페스티벌 개최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의료원장 서유성)은 2월 16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Q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순천향중앙의료원 Q페스티벌은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목표로 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의 우수한 Q활동을 공유하고자 2007년부터 시작했다. 의료원 산하 서울, 부천, 천안, 구미병원에서 각 2개팀에 구연발표에 참여했고, 특별강의와 시상, 기념촬영 등을 진행했다. 특강은 권선병 삼일회계법인 이사의 'Q와 병원 경영 전략'에 이어 진호열 순천향중앙의료원 구매관리팀 대리가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의료기관 내 활용사례 및 발전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시공간 뛰어넘는 '2024 하이플렉스 입학식' 눈길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신입생의 선택에 따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가상-현실 융합 세계에서 시공간을 뛰어넘으며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입학식을 참가해 즐기는 '2024 하이플렉스 입학식'을 3월 4일 개최했다. 순천향대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 메타버스 입학식을 개최해 전 세계 대학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특히, 이듬해 순천향 메타버시티, 스칼라 등을 선보인 입학식 콘텐츠가 유튜브 천만 조회 수를 돌파해 전 세계 MZ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모아 '입학식 맛집'으로 불리고 있다. 신입생들은 현실 세계(체육관, 대면 입학식), 가상 세계(순천향 하이플렉스시티, 비대면 입학식), 가상-현실 융합 세계(인문과학관 대강당, 대면-비대면 융합 입학식) 세 곳에서 입학식에 동시에 참여했다.



간호학과, 11년 연속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 합격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간호학과가 '제64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응시생 75명 전원이 합격했다. 간호학과는 올해 개설 31주년을 맞았으며, 4개 부속 병원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근 11년간 졸업생 전원이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우수한 역량을 입증 받고 있다. 특히, 최첨단 혼합현실(MR) 기술을 교과 과정에 구현해 VR 콘텐츠를 통한 임상 실습 전 정교한 실습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본 간호학 실습 교과를 운영해 재학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은 시선추적-음성-손동작 인식을 통해 컨트롤러 없이 간호 상황에서 환자의 신체 상황 파악 및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상호작용하며 직접 간호술을 수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 지원 사업 2개 동시 선정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사업과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동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에게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하고 고용센터·자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취업·진로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재학 단계부터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해 전략적으로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순천향대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6년 동안 98억 4천만 원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비를 집행하게 된다.



'워킹맘' 일·학습 병행 도전... 계약학과 졸업생 눈길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2024 창의라이프대학 학위수여식'에서 산업체 재직자 과정의 일한인 계약학과 졸업생 24명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졸업생들은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한 세무회계학과 4명, 산업경영공학과 12명, 신리성 품질공학과 4명, 융합기계학과 1명, 자동차산업공학과 3명 등이다. 순천향대는 산업체 및 기관 소속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과 재교육 등을 위해 기업맞춤형 일·학습을 병행하는 7개의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운영 중이다.



'순천향 개이득' 5분자랑 심포지엄 호응

서울병원은 1월 5일 오후 4시부터 신관 청원홀에서 '순천향 개이득' 5분자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외래진료부 주관으로 우리 병원을 이끄는 라이징스타 교수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순천향만이 할 수 있는 인간사랑 실천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발표는 '강나라 치과 교수-무수혈 양악수술과 수면무호흡 수술, 이혜경 신장과 교수-만성콩팥병 환자에게 작은 행운 되어 드리기, 변형권 이비인후과 교수-목소리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을 찾아 4,000km 떨어진 순천향으로, 정종탁 감염내과 교수-어려운 감염병 퍼즐을 맞춰드리는 좋은 감염내과 의사, 서동욱 신경외과 교수-뇌혈관질환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함께 보듬어 주는 따뜻한 순천향'으로 환자를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애쓴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낸 사연을 소개해 감동을 더했다.



외래간호팀, '순천향 막둥이 특독' 개최



외래간호팀은 2월 2일(금)에 신관1회의실에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순천향 막둥이 특독' 행사를 개최했다. 외래 간호팀의 신규간호사를 격려하고 어려움을 듣고 고민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행사는 포토존 한컷, 이제부터 차취봉, 먹으면서 자기소개와 순막독, 퀴즈와 선물 추첨 등 다채롭게 진행했다. 외래진료부와 간호부에서 후원했다.

이경복 교수,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이경복 신경과 교수가 2023년 12월 29일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보장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경복 교수는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전문위원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중증응급의료센터 계획 및 응급의료전달체계개편 협의체 등에 참여하여 필수 중증 응급심뇌질환의 치료시스템 강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급성심뇌혈관질환의 인적자원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인적네트워크 사업) 모형/보상체계 개발 참여 및 선정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수일통상 석수경 회장, 1억 쾌척

석수경 수일통상 대표가 12월 2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병원의 의료 서비스 향상과 환자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과 만나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식은 12일 이사장 집무실에서 진행했다. 이성진 의료원 대외협력사업단장과 박태성 사무처장, 유미중 간호부장, 송지영 사회사업팀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석수경 회장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2억 5천여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병원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석회장은 CEO건강과학대학원 27기로 안과 이성진 교수와 진료인원이 되어 기부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다.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부천병원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자문 형태로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다. 대상 질환은 암,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시 입원료 부담도 줄어든다. 호스피스 이용 환자가 일반병동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 최대 4일까지 입종실로 적용이 가능하다. 섬망 등 증상으로 격리가 필요해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7일까지 격리실 입원료가 적용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소영 교수,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이소영 교수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소영 교수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소장으로서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센터 운영체계 구축과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사례 수퍼비전 및 자문, 피해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사건 지원서류 작성과 의견서 감수 등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안수 교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 취임’

장안수 교수가 1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제16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12월 까지 2년간이다. 장안수 신임 이사장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전문의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편집위원, 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 부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내과학 및 국내외 의료계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현재 순천향대 부천병원 코로나 대응 실장으로 헌신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국내의 저명 학술지에 약 230여 편의 천식 및 알레르기학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해 의료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소아청소년과 신영림 교수,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신영림 교수가 2월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신 교수는 유전성 희귀질환 전문가로서 희귀질환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 유전상담을 시행하여왔으며, 희귀질환 질환 체계 분류, 전문가 교육과 연구에 공헌하였고 대한의학유전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의 보험이사로서 희귀질환 보험제도 정립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번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7년부터 질병관리청 정책융역사업 책임 연구자로서 희귀질환 신규지정 및 등록기준 제정, 전문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고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희귀질환 산정특례 사전심의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등 국내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영상의학과 박재성 교수,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박재성 교수가 1월 산업재해보상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2005년 1월부터 약 18년간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 위원으로서 근로자의 진폐장애등급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판정해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2007년부터 ‘진폐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진폐 장애등급 제도개선에 이바지했다. 특히 신속한 진폐 판정을 위해 ‘판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진폐 연금제도’를 도입해 진폐근로자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공헌했다. 더불어 진폐 판정 의사 교육 및 시스템 구축에 참여해 진폐심사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도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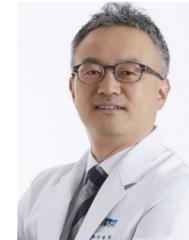
산부인과 김태희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김태희 교수가 1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2004년 창립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보건의료 분야 최고 권위의 석학 단체로, 정회원이 되려면 의학 및 의학 관련 분야에서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후보자 추천을 거친 후보자를 3차 심사를 거쳐 최종 평의회의 인준을 통해서 정회원이 된다. 심사자료는 SCIE급 학술지 게재 논문 등 연구 업적 및 학술 활동, 대학과 학회 활동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김 교수는 다수의 국내외 SCIE급 논문 게재 및 특허 출원, 교육부 장관 표창을 포함한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PM 운영위원, 부천병원 산부인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순천향대 일반대학원 의생명학과 협동과정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신경과 양광익 교수, 제15대 대한수면학회 회장 취임

천안병원 신경과 양광익 교수가 제15대 대한수면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이다. 대한수면학회는 다학제 학술단체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심리학, 기초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면의학의 발전과 국민 수면건강 증진을 위해 연구한다. 양 신임회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수면의학 명이다. 최근 5년간 발표된 SCI급 수면의학 논문이 40여편에 이르고, 논문들은 국내외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또 정상급 수면의학 전문가로 공인받는 썸인 미국수면학회 선정 FAASM(Fellows of the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으로도 뽑힌 바 있다.



(사)이노비즈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천안병원이 (사)이노비즈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지회장 임상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노비즈란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로 정부가 인증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군’을 말한다. 대전세종충남지역에는 1,700여개의 협회 소속 기업이 있다. 협약은 지역 이노비즈협회 기업인과 임직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형국 병원장은 “이노비즈기업 임직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역과 국가 혁신경제의 중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피부과 김정은 교수, K-Medi 융합인재양성 지원사업 선정

천안병원 피부과 김정은 교수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K-Medi 융합인재지원 사업(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에 최종 선정됐다. ‘K-Medi 융합인재지원’은 40세 미만 의과학자 양성 사업으로 1년간 총 1억4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김 교수가 진행할 연구는 ‘주사(Rosacea)에서 JAK-STAT 신호전달경로의 역할 규명 및 신약 재창출을 통한 JAK 억제제의 치료효과 검증. 세포 내 생물학적 반응과 발달을 조절하는 JAK-STAT 신호전달 경로를 분석해 난치성 피부질환인 주사의 발병 기전을 밝히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다. JAK(아뉴스카나제) 억제제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최신 약물이다. 기존 치료제에 비해 효과가 높고, 부작용은 적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신중한 분석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를 위해 김 교수는 올해 하반기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메디컬센터로 1년 과정의 연수를 다녀올 계획이다.



㈜동신포리마, 1억원 추가 기부

지난해 1억원 기부에 이어 ㈜동신포리마(대표 박영대)가 천안병원에 또 1억원의 새병원 건립기금을 기부했다. 충남 홍성의 ㈜동신포리마는 친환경 바닥재 전문 회사다. 제품 70% 이상을 미국, 유럽, 호주 등에 수출하고 있을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영대 대표이사는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려면 좋은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순천향대천안병원의 새병원 건립에 힘을 더 보태게 됐다”고 말했다. 서교일 이사장은 “새병원 건립을 잘 마무리해서 동신포리마의 지역사회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20일 오후 병원 회의실에서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 동신포리마 박영대 대표이사, 순천향대천안병원 박형국 병원장 등 양측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비뇨의학과, 전신마취 수술 1200건 넘겨

천안병원 비뇨의학과는 전신마취 수술건수가 지난해 1,200건을 넘겼다. 총 1,212건으로 2022년보다 271건(941건, 23%) 증가된 수치다. 전신마취 수술건수는 대한비뇨의학회 평가 기준이다. 전문의 1인당 연 200건 이상일 경우 만점을 준다. 학회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전문의 수가 5인인 천안병원 비뇨의학과는 만점 기준(1,000건)을 212건 초과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한 것이다. 부위별 수술건수는 요관이 424건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은 방광(283건)이고, 이후 전립선·정낭(173건), 음낭(135건), 신장(116건), 음경·요도(64건), 기타(17건) 등의 순이었다.



구미병원, 제22·23대 병원장 이취임식



구미병원은 12월 28일, 제22대 정일권 병원장과 제23대 민경대 병원장의 이·취임식을 향설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취임식은 서교일 이사장(학교법인 동은학원)을 비롯하여 서유성 중앙의료

원장, 주요보직자 등 100여명의 내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제23대 순천향대 구미병원장으로 민경대 교수(정형외과)가 취임하였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민경대 병원장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 최고의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업하여 공익을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우수한 의료인력 충원과 교직원들의 복지향상,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경대 신임 병원장은 1989년 순천향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30여년간 재직했으며 순천향대 부천병원 진료협력센터 소장, 대외협력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아울러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 회장, 대한슬관절학회 평의원, 대한정형외과학회 경기지회 이사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다.

김대근 교수 연구팀, ORS 세계최고 학술대회 초청받아 연구발표

구미병원은 2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ORS(Orthopedic Research Society) 학술대회에 김대근 교수(정형외과) 연구팀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ORS 학술대회는 각 나라별 정형외과 의료진 및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최신 치료 술기와 연구 동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뤄지는 정형외과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김대근 교수



연구가 채택되어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김대근 교수 연구팀은 locking screw cap(잠금 나사캡)의 유용성에 대한 유한요소 분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을 통한 연구와 새골에 적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금속판에 대한 연구 등 두가지 연구 포스터를 발표했으며, 세계적 수준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김대근 교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행사에 연구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가치있고 유용한 연구와 개발 활동을 통해 신진의료기술을 습득하고 높은 연구 성과를 내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치료 술기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2024년 시무식 개최



구미병원은 1월 2일 오전 8시 본원 향설대강당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민경대 병원장과 서유성 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보직자들과 1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무식 행사는 ▲고객감동 실천 선언문 낭독 ▲개식선포 및 국민의례 ▲모범직원 포상 ▲신년사 ▲교직원 신년 하례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민경대 병원장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발전을 이끄는 지역의 중심점이 되어 미래병원의 선두주자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자"며, "45년의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찬 100년을 향해 기반을 다지고 교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성 중앙의료원장은 "순천향인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더 안전하고, 더 신뢰받는, 더 좋은 병원으로 발전하는 순천향을 만들어 가자"며, "푸른 용의 움직임처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성취하는 기운이 넘실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 생활화학제품 노출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 결과 공개

구미병원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는 생활화학제품 노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주)엠브레인퍼블릭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10세 미만 어린이를 양육하는 보호자 480명과 20세 이상 성인 553명을 대상으로 사용실태 및 실천율을 조사하여 최근 2년간 조사결과와 비교해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영유아 보호자는 '사고 예방조치' 문항이 21년도 대비 5.7%p 실천율이 상승하였으며, '안전지침 준수' 문항은 21년도 대비 3.8%p 실천율이 상승하였다. 반면 일반인은 '사고 예방조치' 문항이 59.3%로 21년보다 실천율이 3.0%p 감소하였다. '안전지침 준수' 및 '오·남용 예방' 문항은 23년에 각각 85.4%, 87.0%로 21년 대비 2.3%p 이상 실천율이 상승하였다. 윤성용 센터장은 "이번 조사가 일반인이 자주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에 생활화학제품 관리방안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일반성인의 안전지침 준수 실천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평소 사용자가 경험적인 체득에 의한 안전불감증이 원인이기에 제품 뒷면의 설명서에 따라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CH NETWORK

순천향 인간사랑 50년,
의료를 넘어 사람을 꽃피우다

-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